

고령 농업인들 은퇴 직불사업 홍보 강화

✎ 김주현 | ㉠ 승인 2025.10.07

한국농어촌공사 영북지사 고성·양양 대상
“노후 안정화 위해 기존 단점 보완”



▲ 한국농어촌공사 영북지사 직원들이 고성군 간성전통시장을 찾아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을 홍보했다.

한국농어촌공사 영북지사(지사장 박미란, 이하 영북지사)는 농업의 고령화 추세에 발맞춰 고령 농업인들이 소유 농지를 공사에 매도나 매도 조건부 임대를 통해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영북지사는 박미란 지사장을 비롯해 전 직원들이 추석을 전후해 고성군과 양양군 등 농지가

많은 지역을 순회하며 홍보용 리플릿을 배부하며 '농지 이양 은퇴 직불사업' 홍보를 실시했다.

이와 관련, 농지 이양 은퇴 직불사업은 농업 발전에 기여한 고령 농업인이 소유 농지를 공사에 매도 혹은 매도 조건부 임대해 은퇴 이후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지속할 수 있도록 매월 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지급 단가를 높이고 지급 요건을 개선하는 등 기존 경영 이양 직불사업의 단점을 보완한 것이다.

가입 대상은 만65세 이상 만84세 이하 농업인 중 10년 이상 계속해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농업인으로, 3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농업진흥지역 및 경지정리된 비진흥지역 농지에 한해 최대 4ha까지 신청할 수 있다.

농지를 매도하는 농지 이양 방식은 농지 매도 대금 외에 추가로 농지 1ha당 매월 50만원씩 (최대 200만원, 4ha기준) 직불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은퇴 직불형 농지 연금'에 가입하는 농지 이양 방식을 선택할 경우, 농지 연금 월 지급금, 농지임대료 외에 추가로 농지 1ha당 매월 40만원(매월 최대 160만원, 4ha기준)의 직불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또 농지 연금의 지급기간이 종료된 후 농지를 매도하면서 농지매도 대금까지 받을 수 있다.

박미란 지사장은 "고령 농업인들의 편의와 노후 안정화를 위해 보다 더 강화한 이번 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김주현 기자



김주현